

2020년 희곡우체통 3차 낭독회 초대작 선정평

<누에>

이번에 희곡우체통이 선택한 작품은 사극입니다. 선정작 <누에>는 성종을 중심으로 권력에 대해 성찰한 작품으로, 성종은 성군이라 불렸지만 폐비 윤씨로 인해 이후의 역사에 참극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들의 아들인 연산군 이야기는 티브이 드라마를 비롯해서 연극과 영화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그러나 빵잎을 먹고 자란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듯 야심만만한 작가들은 익숙함을 비틀어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내곤 합니다. <누에> 역시 다른 방식을 고민한 작품이지요. 소재의 선정성에 머물지 않고 악의 씨가 불안과 욕망 속에 거둬지며 과문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의 구축이나 삶과 죽음, 현실과 환상을 능란하게 교직하는 극작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성종을 둘러싼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역사는 남성의 것인 듯 장희빈이나 황진이처럼 역사에 굵게 족적을 남긴 여성을 제외하고, 그동안 사극의 여성들은 대부분 작은 조연에 머물렀습니다. 이 작품 역시 성종을 중심에 놓고 있지만, 작품이 보다 주목하는 것은 그 주변의 여성들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전공공하며 남성적 역사를 수호하는 여성들, 반대로 그런 구조로 인해 친잠실에 갇힌 누에처럼 규방에 갇히거나 내훈쓰기를 강요당하는 여성들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클라이막스가 약하다는 극작술상의 단점이 섭섭하지만, 괴물 같은 권력의 속성과 그 권력을 위해 함께 괴물이 되어버렸던 여성들의 역사를 성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시대의 관객들과 낭독의 기회를 공유하고 싶은 작품입니다. 고치가 나비가 되듯 <누에> 역시 이 낭독회를 징검다리 삼아 또 한 단계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보니 2020년의 희곡우체통은 동시대를 다룬 <X의 비극>, 미래 사회를 다룬 <세 개의 버튼>에 이어 과거를 다룬 <누에>까지 왔네요. 희곡우체통과 함께 하는 시간 여행의 행로에 관객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십시오.

희곡우체통은 국립극단이 공연할 문제작을 찾기 위해 마련한 상시 투고제도입니다. 기성작가만이 아니라 숨어있는 모든 작가 지망생들에게 열린 제도로, 동시대의 시의적절한 주제와 형식을 갖춘 장막극을 환영합니다. 신춘문예용 단막극은 국립극단에서 공연할만한 장막극으로 수정, 보완해서 투고해주십시오.

동시에 국립극단은 이 제도를 통해 비록 공연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능성 있는 여러 편의 창작극을 발굴하여 낭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형식의 낭독회이긴 하지만, 작가가 문자로 구축한 세계가 실제 관객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효과와 문제가 있을지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 이 낭독공연을 매개로 가능성 있는 작품이 더 발전하길 바랍니다. 관객 여러분도 낭독공연이라는 징검다리를 함께 놓아주십시오.

희곡우체통 우체국장 김명화